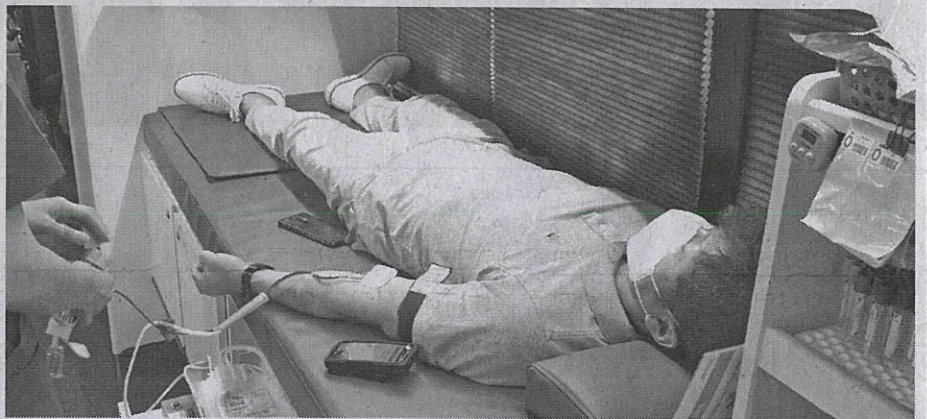


‘구시설관리공단, 코로나19 관련 혈액수급 안정화 단체 2차 헌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헌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난 3일 코로나19 관련 혈액수급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공단 임직원 23명이 참여하여 헌혈을 진행했다.

헌혈에 참여한 이춘기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 의사를 전한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 재난 및 위기 상황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마포구자원봉사센터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외에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와도 이미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150여개 경로당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 정비·점검 활동을 월1회 기술봉사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능을 지역

이동복지센터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미용, 축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 등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앞으로도 기대된다.